

퀀틴전시 플랜

미국 가계 소비여력 줄어 들고 있을지도?



[투자전략팀]

조재운 / Quant Strategist
jaeun.jo@daishin.com

이경민 / Strategist
kyoungmin.lee@daishin.com

이슈 점검

미국 가계 소비여력 줄어 들고 있을지도?

- 미국 경제는 소비 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, 소비 지출의 변화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. 뱅크오브아메리카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서 미국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분석하며, '한 달 벌어 한 달' (paycheck to paycheck) 살아가는 월급 생활자들의 비중 증가를 주목
- 월급 생활자는 필수 지출이 소득의 95% 이상인 가계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중. 2024년에는 전체 가구 중 25%가 월급 생활자로 분류. 설문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50%가 자신을 월급 생활자로 분류(2022년에는 35~40% 수준)

고소득 가구에서도 월급 생활자는 증가

- 고소득(연 수입 15만 달러 이상) 가구도 20%가 월급 생활자로 분류. 소득이 늘어날수록 월급 생활자 비율이 35~20%까지 줄어들지만 월 수입이 15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서도 20%가 월급 생활자로 소득이 늘어나도 비율의 감소는 크지 않았음. 또한 2019년의 15%, 2023년의 18%대비 증가한 수치

월급 생활자 증가 원인: '필수 지출' 증가와 '소비 여력' 감소

- 월급 생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'필수 지출' 증가와 '소비 여력' 감소에 기인한다고 판단
- 필수 지출 증가: 주거 비용 상승, 의료비 증가, 교육 비용 증가 등 필수 지출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월급 생활자 증가 현상의 주요 원인. 특히 주거 비용 상승은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
- 소비 여력 감소: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판단. 이는 월급 생활자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며, 미래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확대

베이비붐 세대의 '소비 위축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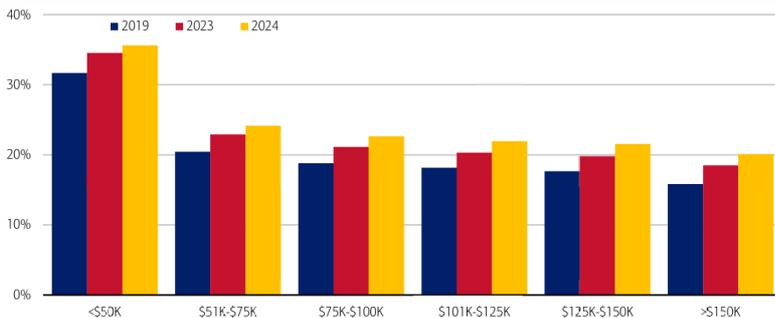
- 보고서는 연령대별 월급 생활자 비율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에 주목.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의 약 30%가 월급 생활자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지출 감소로 연결.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소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, 이들의 소비 위축은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

요일	주제
월	이슈/변곡점 분석 및 전망
화	경제지표/이슈 점검
수	증시 성과 요인 분석
목	실적 컨센서스 점검
금	밸류에이션 점검, 주간 전망
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?
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**퀀트, 전략, 시장**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.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,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고소득 가구에서도 월급 생활자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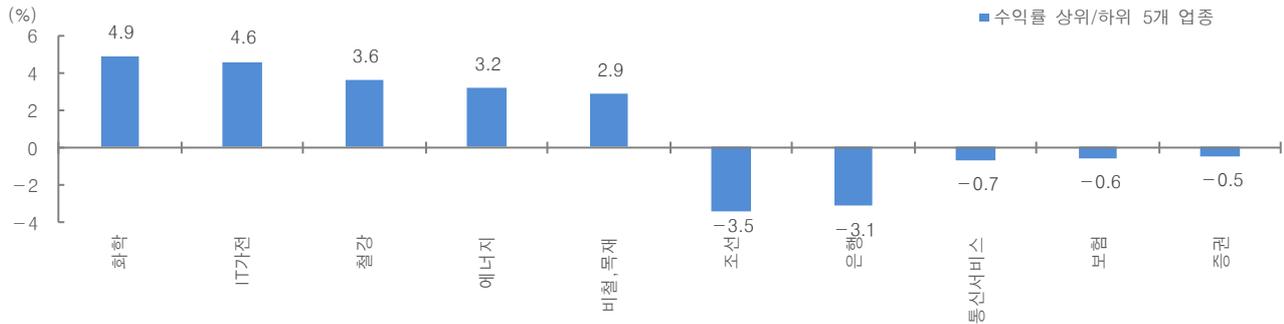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ank of America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업종 수익률 및 특징주

- 지정학적 이슈 완화에 따른 원유공급 리스크 감소 및 석유제품 수출 호조로 금호석유 등 정유화학 관련주 상승하며 화학업종 강세
- 미국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트레이딩 유입, 해리스 트레이드 발생하며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업종 강세
- 실적발표를 앞두고 수주 경계감 및 선가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 HD현대미포 등 하락하며 조선업 약세

수익률 상위/하위 5개 업종


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KOSPI, 업종별 수익률 추이

주요 지수	현재가 (p)	동락율(%)							YTD
		1D	1W	1M	3M	6M	12M		
KOSPI	2,612	1.1	0.3	-1.4	-4.4	-1.7	13.5	-1.6	
에너지	3,598	3.2	2.7	-3.2	1.1	3.9	0.7	-13.4	
화학	4,966	4.9	1.7	-6.6	0.7	-13.0	-16.1	-28.0	
비철·목재	6,884	2.9	29.9	48.1	76.9	75.5	79.9	75.4	
철강	2,377	3.6	1.2	-8.2	-1.9	-12.1	-16.5	-28.7	
건설·건축	1,088	1.1	-3.2	-7.3	-15.9	-9.0	-8.2	-13.4	
기계	3,418	0.6	-0.8	5.3	2.1	13.0	70.3	43.4	
조선	3,509	-3.5	-2.9	1.4	-9.2	16.9	53.9	34.3	
상사·자본재	1,618	0.9	0.0	2.8	2.9	8.0	43.4	20.0	
운송	1,521	1.3	-0.6	-3.4	5.0	13.3	20.7	-0.1	
자동차	8,930	0.8	-1.1	-5.8	-6.6	-11.3	17.4	0.7	
화장품·의류	3,883	1.3	-2.0	-8.0	-5.8	-2.9	7.0	-4.2	
호텔·레저	1,764	2.7	-0.9	-5.3	3.4	-6.2	11.0	-5.3	
미디어·교육	558	1.3	1.8	7.1	8.1	-5.3	-8.0	-13.5	
소매(유통)	1,668	1.9	-0.3	-4.4	-0.9	-10.0	-17.5	-17.5	
필수소비재	5,462	0.2	1.1	-1.7	-0.5	11.5	16.6	12.1	
건강관리	9,282	0.4	-3.4	1.7	7.9	20.9	34.7	9.8	
은행	1,937	-3.1	1.0	6.2	3.4	15.0	54.5	38.4	
증권	1,390	-0.5	-0.9	3.9	13.8	18.9	59.7	38.6	
보험	7,548	-0.6	0.6	1.4	1.8	11.0	32.7	32.2	
소프트웨어	5,667	1.6	-2.0	0.1	0.0	-3.6	3.4	-17.6	
IT하드웨어	783	2.3	-3.4	-10.1	-18.1	-15.2	-4.9	-18.6	
반도체	8,632	1.8	-0.3	-5.2	-21.0	-16.4	1.7	-13.2	
IT가전	2,159	4.6	3.3	-7.0	4.7	-6.6	-12.7	-19.4	
디스플레이	654	2.5	-2.5	-9.0	-10.5	-3.3	-10.9	-16.0	
통신서비스	327	-0.7	1.4	4.3	8.1	15.9	20.0	16.4	
유틸리티	826	0.6	4.1	4.8	10.0	16.0	39.9	26.5	

주: Top 5, Bottom 5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KOSPI, 업종별 YTD 수익률

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 이경민, 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